

# 廣州語 比較구문 연구

趙恩挺\*

---

◁ 목 차 ▷

- I. 緒論
  - II. 廣州語 比較구문의 類型
    - 1. 우등비교
    - 2. 동등비교
    - 3. 열등비교
  - III. 기타方言 및 古漢語 우등비교구문의 類型
    - 1. 기타方言 우등비교구문의 類型
    - 2. 古漢語 우등비교구문의 類型
  - IV. 廣州語 우등비교구문 형성의 통시적, 공시적 관찰
  - V. 結論
- 

## I. 緒論

방언은 표준 중국어와는 다른 방언 고유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南方方言의 하나인 廣州語<sup>1)</sup>는 북방의 방언과는 상당히 다른 언어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등비교구문인데 이는 「A+술어+過+B」의 형태로 표준 중국어의 「A+比+B+술어」와는 달리 술어가 비교 대상인 'B'의 앞에 놓인다.

廣州語의 여러 개론서들이 廣州語의 우등비교구문에 대해 소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유형적인 분류에만 치중하고 있는데다가 자세한 설명 없이 한 두 가지 예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비교구문에 관한 상세한 내용

---

\*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1) 廣州語 명칭에 관한 내용은 趙恩挺 〈廣州語와 표준 중국어의 否定文 比較 研究〉(《中國文學研究》29輯, 韓國中文學會, 2004. 12.) 237쪽을 참조할 것.

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우등비교구문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우등비교구문의 유형과 예문뿐만 아니라 내부구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역사비교언어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廣州語의 우등비교구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다른 방언과는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통시적인 방법으로는 古漢語와, 공시적인 방법으로는 기타 한어방언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廣州語 비교구문의 연구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비교구문의 또 다른 유형인 동등비교구문과 열등비교구문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이들은 현대 표준 중국어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신 현대 표준 중국어와는 확연히 다른 우등비교구문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어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 II. 廣州語 比較구문의 類型

廣州語의 比較구문은 다음과 같은 우등비교, 동등비교, 열등비교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I. 우등비교

廣州語의 우등비교구문은 표준 중국어와는 달리 술어가 비교대상의 앞에 놓이게 된다. 즉 표준 중국어는 「A+比+B+술어」의 형식으로 비교대상 'B'가 술어의 앞에 놓이지만 廣州語는 「A+술어+過+B」의 형식으로 비교대상이 술어 뒤에 놓이게 된다.

#### 1) A+형용사+過+B

- (1) 今日凍過琴日咯.

- (今天比昨天冷.)  
 오늘은 어제보다 춥구나.
- (2) 我肥過你咯.  
 (我比你胖.)  
 난 너보다 뚱뚱해.
- (3) 學廣州話難過學普通話.  
 (廣州話比普通話難學.)  
 광둥어가 普通話보다 배우기 어려워.
- (4) 搭的士快過搭巴士.  
 (坐計程車比坐公車快.)  
 택시를 타는 것이 버스를 타는 것보다 빨라.

우등비교구문에서는 피비교자인 'A'와 비교대상인 'B'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문 (3)과 (4)처럼 동사구(學廣州話/學普通話, 搭的士/搭巴士)인 경우도 있다. 술어의 위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형용사(凍, 肥, 難, 快)만 사용된다.

「A+술어+過+B」에서의 'B(비교대상)'는 술어의 뒤에 위치하는데, 이는 표준 중국어 「A+比+B+술어」에서의 'B'가 술어의 앞에 놓이는 것과는 상반된다.

高華年은 광주어의 우등비교구문 「A+술어+過+B」에서의 '過'를 전치사로 간주하고 있으나,<sup>2)</sup> 이는 단순히 표준 중국어와 비교하여 '比'에 대응하는 '過'를 전치사라고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過'를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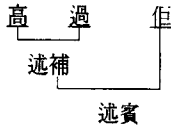
李新魁는 광주어의 우등비교구문을 단순히 표준중국어와 비교하기보다는 내부 구조에서 그 차이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sup>

2) 高華年《廣州方言研究》:「這類比較句往往在形容詞的後面加介詞'過'kwɔ̃˥來表示。……廣州方言在相比兩事物的中間不用'比', 而把形容詞放在相比的兩事物的中間, 在形容詞的後面加介詞'過'表示。(이런 종류의 비교구문은 종종 형용사 뒤에 전치사 '過'kwɔ̃˥를 붙여 표시한다. ……광주방언은 비교하는 두 사물의 중간에 '比'를 쓸 필요가 없다. 대신 형용사를 비교하는 두 사물의 중간에 놓고 형용사의 뒤에 전치사 '過'를 붙여 표시하면 된다.)」(香港, 商務印書館, 1984), 263쪽.

3) 李新魁 等《廣州方言研究》(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5), 570-571쪽.

“過”는 전치사로 간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廣州語와 普通話 비교구문의 차이가 단순히 비교대상인 乙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만도 아니고, 또한 비교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조가 형용사의 앞에 있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지의 문제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단순한 어순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구조의 차이점 때문이다. (“過”不能看作介詞，因此廣州話和普通話比較句格式的差異，就不光是比較的乙方在句中的位置不同，也不是表比較的介詞結構處在形容詞之前還是形容詞之後的問題，換句話說，不是簡單的語序差別，而是內部結構很不相同.)

그는 또한 우등비교구문의 구조를 ‘高過佢(그보다 키가 크다)’라는 예문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4)</sup>



그는 ‘過’를 의미가 허화된 방향동사<sup>5)</sup>라고 하였는데 위의 도표에서 보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過’는 방향보어라고 생각된다. 위의 문장은 ‘그보다 키가 크다’ 즉, ‘키가 큰 것이(高) 그(佢)를 능가하다(過)’라는 뜻인데, 방향보어 ‘過’에는 ‘능가하다, 넘어서다, ~보다 낫다(勝過)’라는 뜻이 있으므로 ‘過’를 방향보어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A + 형용사 + 過 + B + 수량보어

- (5) 佢高過我好多.  
(他比我高很多.)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키가 커.
- (6) 佢細過你三年.  
(他比你小三歲)  
그 사람 너보다 세 살 어려.

4) 李新魁 等 《廣州方言研究》，571쪽.

5) 李新魁 等 《廣州方言研究》，570쪽. “過”是個意義虛化了的趨向動詞，表示程度上超過. (“過”는 의미가 허화된 방향동사로 정도가 초과됨을 나타낸다.); 참고로 방향동사는 다른 술어동사 뒤에서 방향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

(7) 呢條褲平過嗰條五千文。<sup>6)</sup>

(這條褲子比那條便宜五千塊.)

이 바지는 저 바지보다 오 천 원이 싸.

수량보어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놓여 사용되지만, 형용사 뒤에 놓여 수량상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수량보어는 주로 비교구문에서 형용사 뒤에 놓이게 되는데, 廣州語에서는 비교대상인 'B'의 뒤에 놓여 수량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예문 (5)의 '好多'나 예문 (6)의 '三年', 예문 (7)의 '五千文'은 모두 수량보어로 형용사 '高', '細', '平'보다 뒤에 위치한 비교대상 '我', '你', '嗰條'의 뒤에 놓이게 된다.

### 3) A + 先 + 過 + B

'A + 先 + 過 + B' 형식에서의 'A'는 주어와 술어가 결합된 절의 형태이고, 'B'는 술어가 생략된 절의 형태이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ac{\text{주어} + \text{술어} + \text{先} + \text{過} + \text{주어} (+ \text{술어})}{\begin{matrix} A & B \end{matrix}}$$

'先'은 보통 부사로 쓰이지만 이 문형에서는 '先'이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이는 우등비교구문의 첫 번째 유형인 'A + 형용사 + 過 + B'와 그 형식이 일치한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8) 呢勻你做起<sup>7)</sup>先過我喇。

(這次你比我先做完了.)

이 번에 네가 나보다 먼저 끝냈어.

(9) 我時時起身<sup>8)</sup>先過佢。

(我常常比他先起床.)

난 항상 그 보다 먼저 일어나.

6) 화폐 단위인 '文'(元, 塊)은 '數'으로 쓰기도 한다.

7) '做起'의 '起'는 시작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사 뒤에 놓여 완성을 나타낸다.

8) '起身'은 '起床'과 '起來' 두 가지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起床'의 뜻으로 쓰였다.

예문 (8)에서의 피비교자(A)는 주어와 술어가 결합된 '你做起'이고 비교대상(B)은 술어가 생략된 '我(做起)'이다. 예문 (9) 역시 피비교자는 주어와 술어가 결합된 '我起身'이고 비교대상은 술어가 생략된 '佢(起身)'이다.

#### 4) A+형용사/동사+得(唔)+過+B

술어와 방향보어 '過' 사이에 구조조사 '得'이 놓이면 가능보어를 구성하게 되는데,<sup>9)</sup> 이 때의 뜻은 '더 ~하다'가 된다. '得' 자리에 '唔(不)'이 놓이면 부정형이 된다. 술어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도 사용할 수 있다. 문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형용사/동사+得+過+B (긍정형)

A+형용사/동사+唔+過+B (부정형)

이에 해당하는 예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10) 我嘅事頭婆忙得過老細。  
(我的老板娘比老板更忙)  
사모님이 사장님보다 더 바빠.
- (11) 你靚得過你家姐。  
(妳比妳的姐姐更漂亮.)  
넌 니 언니 보다 더 예뻐.
- (12) 呢件事佢識得過我喇。  
(這件事他比我做得更好囉.)  
이 일은 그가 나보다 더 잘 할거야.

9) 현대 한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즉 결과보어 혹은 방향보어가 '得' 또는 '不'와 결합하게 되면 가능보어가 된다. 劉月華는 가능보어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유형을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라고 하였다. 劉月華 等 《實用現代漢語語法》:「(可能補語)在結構上與結果補語和趨向補語關係很密切, 可能補語中最重要的一種, 就是由結果補語和趨向補語構成的, 所以我們把它歸入補語. ((가능보어는) 구조에 있어서 결과보어, 방향보어와 관계가 밀접하다. 가능보어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은 결과보어와 방향보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보어에 포함시킨다.」(北京, 商務印書館, 2003), 581-582쪽. 참고로 劉月華가 분류한 가능보어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一, 由"得/不+結果補語/趨向補語"構成的. 二, 由"得/不+了"構成的. 三, 由"得/不得"構成的.

- (13) 我食飯快唔過佢.  
 (我吃飯比不上他快.)  
 난 그 사람만큼 밥 빨리 못 먹어.
- (14) 我叻唔過你.  
 (我沒有你能幹.)  
 난 너만큼 능력 있지 않아.
- (15) 阿三跑唔過阿強.  
 (阿三跑不過阿強.)  
 阿三是 阿強만큼 빨리 달리지 못해.

예문 (10)부터 (12)까지는 가능보어의 긍정형에 해당하고, 예문 (13)부터 (15)까지는 부정형에 해당한다. 위의 예문들 모두 방향보어에 '得' 또는 '唔'이 결합되어 가능보어를 구성하고 있다.

예문 (10)과 (11)은 형용사 '忙'과 '靚'이 술어로 쓰였고, 예문 (12)는 동사 '識'이 술어로 쓰였다.

예문 (13)과 (14)는 형용사 '快'와 '叻(能幹)'이 술어로, (15)는 동사 '跑'가 술어로 쓰였다.

## 2. 동등비교

廣州語의 동등비교는 'A와 B는 같은 정도로 ~하다'라는 「A 同 B 一樣 + 술어」와 'A는 B만큼 ~하다'라는 「A 有 B 咁 + 술어」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표준중국어의 「A 跟 B 一樣 + 술어」, 「A 有 B 那麼 + 술어」와 그 형식이 일치한다.

### 1) A 同 B 一樣 + 형용사/동사구

「A 同 B 一樣 + 술어」에서 술어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구도 사용된다.

- (16) 臺灣同香港一樣熱.  
 (臺灣跟香港一樣熱.)  
 대만은 홍콩처럼 더워.

- (17) 佢個仔同你個仔一樣大.  
 (他的兒子跟你的兒子一樣大.)  
 그 사람 아들은 너희 아들과 나이가 같아.
- (18) 佢同我一樣識講廣州話.  
 (他跟我一樣會說廣州話.)  
 그 사람 나처럼 광둥어를 할 줄 알아.

예문 (16)과 (17)에서 술어는 '熟, 大'와 같은 형용사가 사용되었고, 예문 (18)에서는 '識講廣州話' 같은 동사구가 사용되었다.

## 2) A 有 B 咁 + 형용사/동사구

'A 有 B 咁 + 술어' 역시 'A 同 B 一樣 + 술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동사구가 술어로 사용된다. '咁'은 '這麼, 那麼'의 뜻으로 'A 有 B 咁 + 술어'는 'A 有 B 這麼/那麼 + 술어'의 뜻을 지닌다. 이는 표준 중국어의 동등비교구문과 일치한다.

- (19) 我老竇有後生仔咁健康.  
 (我爸爸有年青人那麼健康.)  
 우리 아버지는 젊은 사람처럼 건강하셔.
- (20) 你有五年前咁後生.  
 (你有五年前那麼年輕.)  
 넌 오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젊구나.
- (21) 佢有我咁中意細蚊仔.  
 (他有你那麼喜歡小孩.)  
 그 사람 너만큼 어린아이를 좋아해.

예문 (19)과 (20)의 술어는 형용사 '健康', '後生'이고, 예문 (21)의 술어는 동사구 '中意細蚊仔'이다.

예문 (20)은 '你而家嘅樣有五年前嘅樣咁後生.(너의 지금의 모습이 오 년 전의 모습만큼 젊다)'라는 문형의 축약형이다. 여기서는 '你'와 '五年前'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而家嘅樣(지금의 모습)'과 '五年前嘅樣(오 년 전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다.



### 3. 열등비교

#### 1) A 冇 B 咁 + 형용사/동사구

열등비교는 동등비교 「A 冇 B 咁 + 술어」의 부정형인 「A 冇 B 咁 + 술어」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표준 중국어의 열등비교 「A 沒有 B 那麼 + 술어」의 형태와 일치한다. 이 문형에서 술어는 역시 형용사나 동사구가 사용된다.

(22) 今年天熱<sup>10</sup>冇舊年咁熱.

(今年夏天沒有去年那麼熱.)

올 여름은 지난여름만큼 덥지는 않았어.

(23) 教書冇寫論文咁辛苦.

(教書沒有寫論文那麼辛苦.)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논문을 쓰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아.

(24) 佢冇你咁中意唱歌.

(他沒有你那麼喜歡唱歌.)

그 사람 너만큼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

예문 (22)의 술어는 형용사 ‘熱’, (23)의 술어는 형용사 ‘辛苦’, (24)의 술어는 동사구 ‘中意唱歌’이다.

## Ⅲ. 기타方言 및 古漢語 우등비교구문의 類型

기타方言과 古漢語에서도 우등비교구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廣州語의 우등비교구문과 일치하는 문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형도 있다. 이 중에서 廣州語와 일치하는 문형들을 통해 廣州語 우등비교구문의 발전과정과 기타방언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기타방언과 古漢語 우등비교구문에 관한 내용들이다.

### 1. 기타方言 우등비교구문의 類型

10) 廣州語에서는 여름을 ‘天熱’ 또는 ‘熱天’이라고 한다.

廣州語의 우등비교구문은 표준 중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廣州語뿐만 아니라 閩方言과 客家方言 같은 다른 南方方言에서도 이와 같이 표준 중국어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넌 그 사람보다 키가 커(你比他高)'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25) 客家語, 閩北語 : 你比佢過高. 「A+比+B+過+형용사」  
 (25-1) 廈門語 : 你較高伊. 「A+較+형용사+B」  
 (25-2) 潮州語, 海南語 : 你高過伊. 「A+형용사+過+B」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sup>12)</sup>

- (26) 客家語 : 今晝日比秋晝日過冷. 「A+比+B+過+형용사」  
 (今天比昨天冷.)  
 오늘은 어제 보다 춥다.  
 (27) 廈門語 : 我□筆較好汝□筆.<sup>13)</sup> 「A+較+형용사+B」  
 我的筆比你的筆好.  
 (내 펜은 니 것 보다 좋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客家語나 閩北語는 「A+比+B+過+형용사」의 형태로 우등비교구문을 형성하고, 廈門語는 「A+較+형용사+B」의 형태로, 潮州語와 海南語는 「A+형용사+過+B」의 형태로 우등비교구문을 형성한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남방방언에 속하는 閩方言(閩北語, 廈門語, 潮州語, 海南語)과 客家方言 모두 표준 중국어의 「A+比+B+형용사」와는 다른 형태로 우등비교 구문을 구성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閩方言에 속하는 潮州語와 海南語(예문 25-2)가 다른 閩方言들과는 달리 粵方言에 속하는 廣州語와 동일한 형식(A+형용사+過+B)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1) 하시모토 만타로 著, 임익상 譯 <아시아 대륙에서의 언어 확산: 한장어의 유형학적 다양성 문제>, 《中國語語順研究》, (서울 : 송산출판사, 1998), 70-71쪽 참조.

12) 袁家驊 等著 <漢語方言概要(第二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89), 174, 277쪽.

13) 예문과 같이 □로 표기하는 것은 글자 없이 발음만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예문에서의 □는 [e]로 발음되며 구조조사 '的'에 해당한다.

潮州語와 海南語에 해당하는 예문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sup>14)</sup>

- (28) 潮州語 : 牛大過豬. (소가 돼지보다 크다.)  
 今日熱過昨日. (오늘은 어제보다 덥다.)
- (29) 海南語 : 北京寒過海南. (북경은 해남보다 춥다.)  
 黎族人口□(多)過苗族.<sup>15)</sup> (黎族의 인구는苗族보다 많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閩方言에 속하는 潮州語, 海南語가 粵方言에 속하는 廣州語와 동일한 형태(A+형용사+過+B)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방언의 지리적인 특성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閩方言은 대부분 福建省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潮州語는 廣東省에서 사용되고 있고(潮州는 廣東省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海南語는 海南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둘은 다른 閩方言들과는 달리 福建省이 아닌 다른 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粵方言 사용지역인 廣東省과 廣東省과 인접해 있는 海南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廣東省에 인접한 두 언어가 粵方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의 언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古漢語<sup>16)</sup> 우등비교구문의 類型

馮春田의 분류에 의하면 古漢語의 우등비교구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7)</sup>

- ① A+형용사+於+B  
 例)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 (《孟子·梁惠王》上)<sup>18)</sup>

14) 袁家驊 等著 《漢語方言概要(第二版)》, 277쪽.

15) 예문의 □는 [ke-]로 발음되며, 괄호 안의 (多)에서 알 수 있듯이 '많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6) 古漢語는 古代漢語라고도 하는데 原始漢語, 上古漢語, 中古漢語, 近代漢語로 구분할 수 있다. 즉 原始漢語, 上古漢語, 中古漢語, 近代漢語가 모두 古漢語에 포함된다. 楊劍橋 《實用古漢語知識寶典》(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3), 2쪽 참고.

17)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研究》(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0), 649-663쪽 참고.

왕께서 만약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 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② A+형용사+如+B

例) 問:「日是陽, 如何反行得遲如月?」, 曰:「正是月行得遲。」(《朱子語類·理氣下·天地下》)<sup>19)</sup>

문기를 “해는 양의 기운인데 어떻게 오히려 달보다 느리게 움직입니까?” 대답하기를 “본래 달은 느리게 움직인다.”

③ A+형용사+似+B

例) 得志犬貓強似虎, 失時鸞鳳不如鷄。(《醒世姻緣傳》第91回)<sup>20)</sup>

뜻을 얻으면 개나 고양이도 호랑이보다 강해지고, 뜻을 잃으면 난새나 봉황도 닭보다 못하게 된다.

④ A+형용사+得+B

例) 溫公《禮》有疏漏處, 高氏《送終禮》勝得溫公《禮》。(《朱子語類·禮二·儀禮》)<sup>21)</sup>

溫公의 《禮》는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高氏의 《送終禮》가 溫公의 《禮》보다 낫다.

⑤ A+형용사+起+B

例) 我年紀大起你。(《醒世姻緣傳》第92回)<sup>22)</sup>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⑥ A+형용사+過+B

例) 貧於楊子兩三倍, 老過榮公六七年。(白居易 <送劉五司馬赴任硤州兼寄崔使君>)<sup>23)</sup>

(劉司馬는) 楊子보다 두 세배 더 가난하고, 榮啓期보다 6,7년은 더 늙었다.

⑦ A+형용사+B

例) 無奈這徐英, 一日大一日, 在家一日狠一日。(《型世言》第35回)<sup>24)</sup>

유감스럽게도 이 徐英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집에서는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다.

이 중에서 여섯 번째 「A+형용사+過+B」의 형식은 廣州語의 우등비교구

18) (清)焦循 撰, 沈文倬 點校 《孟子正義》(北京, 中華書局, 2004), 53쪽

19) (宋)黎靖德 編, 王星賢 點校 《朱子語類》(北京, 中華書局, 2004), 16쪽.

20) 西周生 輯著 《醒世姻緣傳》(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482쪽.

21) (宋)黎靖德 編, 王星賢 點校 《朱子語類》(北京, 中華書局, 2004), 2195쪽.

22) 西周生 輯著 《醒世姻緣傳》(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518쪽.

23) 顧學頡 校點 《白居易集》(北京, 中華書局, 1996), 714쪽.

24) (明)陸人龍 編 《型世言》(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529쪽.

문과 일치한다. 廣州語와 일치하는 古漢語의 ‘過’ 우등비교구문을 좀 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30) 弟子名飛衛，學射於甘蠅，而巧過其師。(《列子·湯問》)<sup>25)</sup>  
제자의 이름은 飛衛로 甘蠅에게 활 쏘는 법을 배웠는데, 그의 스승보다 뛰어났다.
- (31) 貧於楊子兩三倍，老過榮公六七年。(白居易 <送劉五司馬赴任破州兼寄崔使君>)<sup>26)</sup>  
(劉司馬는) 楊子보다 두 세배 더 가난하고, 榮啓期보다 6,7년은 더 늙었다.
- (32) 直如富過石崇家，誰免身爲填下土。(敦煌文獻《禪門十二時曲》)<sup>27)</sup>  
설령 石崇의 집보다 부유하다 할지라도, 누군들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 (33) 這些隣舍是他房客，又道這是狠過閻羅王的和尚，凶似夜叉的婦人，都不敢來惹他。(《型世言》第29回)<sup>28)</sup>  
이들 이웃은 그의 세입자였는데, 염라대왕보다 더 악독한 화상이며 夜叉보다 더 흉악한 부녀자라고 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 (34) 因此，太尊曉得，所以說從古至今凶惡的婦人也多，從沒有似你這般惡過狼虎的。(《醒世姻緣傳》第98回)<sup>29)</sup>  
이로 인해 太尊이 알게 되어서 말하기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흉악한 부녀자들도 많았지만, 너처럼 이렇게 이리나 호랑이보다 더 악독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였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보다 ~하다’라는 뜻의 우등비교구문으로 「A+형용사+過+B」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列子》에도 등장한 것으로 미루어 先秦時代에 이미 이러한 우등비교구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 출현한

25) 莊萬壽 註譯 《新譯列子讀本》(臺北, 三民書局, 1981.12), 181쪽.

26) 顧學頡 校點 《白居易集》(北京, 中華書局, 1996), 714쪽.

27) 石林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7)의 71쪽과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研究》(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0)의 660쪽에서 재인용.

원문 해석에 도움을 주신 김경동 선생님과 원전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김경동, 김금남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8) (明)陸人龍 編 《型世言》(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257쪽.

29) 西周生 輯著 《醒世姻緣傳》(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699쪽.

여러 문학작품들을 통하여 그 후 清代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譚步云은 〈廣州話形容詞比較級的語法形式〉에서 廣州語의 ‘過’ 비교문은 古漢語의 ‘於’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구성방법이 ‘於’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였다. 즉,

廣州語의 형용사 비교급 “過”는 古漢語의 형용사 비교급 “於”에 기원을 두고 있다. ……廣州語의 형용사 비교급 “過”는 그 구성방법이 古漢語의 형용사 비교급 “於”와 완전히 일치한다.(廣州話形容詞比較級“過”字式當起源於古漢語形容詞比較級“於”字式. ……廣州話形容詞比較級“過”字式, 句法結構完全同於古漢語形容詞比較級“於”字式.)<sup>30)</sup>

王李英도 〈粵語與普通話的幾種句式差異探源〉에서 譚步云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sup>31)</sup> 李新魁 역시 《廣東的方言》에서 두 사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狗大過貓(개는 고양이보다 크다). 潮汕語의 이러한 문형은 古代漢語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한어의 비교구문은 ‘甲( )於乙’의 문형을 자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潮汕語의 ‘過’는 古漢語의 ‘於’에 해당하며 (두) 문장의 구조는 일치한다.(狗大過貓. 潮汕話這種句式在 古代漢語中可以找到它的根源. 古代漢語的比較句常用“甲( )於乙”的句式, 這裏, 潮汕話的“過”相當於古漢語的“於”, 句子的結構是一樣的.)<sup>32)</sup>

30) 譚步云 〈廣州話形容詞比較級的語法形式〉,《廣州話研究與教學(第二輯)》(廣州, 中山大學學報編輯部, 1995), 26쪽

31) 王李英 〈粵語與普通話的幾種句式差異探源〉:「粵語的比較句式是從古漢語的比較句式發展而來的, 所不同的是:古漢語用“於”引進比較對象, 而粵語用“過”引進比較對象. 譚步云先生在《廣州話形容詞比較級的語法形式》中指出:“廣州話形容詞比較級“過”字式當起源於古漢語形容詞比較級“於”字式.”這是很有道理的.(粵語의 비교구문은 古漢語의 비교구문에서 발전되어 왔다. (粵語와 古漢語의) 다른 점이라면 古漢語는 “於”를 비교 대상에 사용했다는 것이고, 粵語는 “過”를 비교대상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譚步云선생이 《廣州話形容詞比較級的語法形式》에서 “廣州語 형용사 비교급인 “過”는 古漢語 형용사 비교급 “於”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廣州話研究與教學(第三輯)》,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1998.2), 173쪽.

32) 李新魁 《廣東的方言》(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4.10), 405쪽.

여기에서의 潮汕語는 潮州語를 가리킨다.<sup>33)</sup> 潮州語는 廣東省에서 사용되고 있는 閩方言으로 우등비교구문이 廣州語와 일치한다(본고 제3장 제1절 참조). 위의 세 사람 모두 '過'가 '於'에서 분화되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譚步云은 古漢語의 '過'비교구문이 清代 초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늦어도 清代 초기에, 형용사의 비교급을 나타내는 '過' 형식이 이미 '於' 형식의 盟主 위치에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을 것이다.……'過'형식은 아마도 清代 초기에 이미 유행했을 것이며, '於' 형식과의 공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至遲在清初, 表形容詞比較級的'過'字式業已開始衝擊'於'字式的霸主地位了.……'過'字式很可能在清初已經流行, 與'於'字式并行不悖.)

그렇지만 「A+형용사+過+B」형식의 우등비교구문은 예문 (30)~(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清代보다 훨씬 전인 先秦時代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후 唐代를 거쳐 清代까지 꾸준히 사용되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등비교구문 '過'는 古漢語 '於'에서 분화되어 나와 清代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형식이 아니라, '於'와는 별개로 先秦時代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형식이 清代까지 꾸준히 사용되어져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 IV. 廣州語 우등비교구문 형성의 통시적, 공시적 관찰

古漢語의 형식이 왜 방언인 廣州語에 나타나는 것일까. 본고를 통해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漢語에 있어서 方言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古代 北方의 언어가 오랜 세월을 통해 남하하면서 그 지역의

33) 李新魁 《廣東的方言》，263쪽: 「流行於廣東粵東地區的閩方言過去稱爲“潮州話”，現在一般叫做“潮汕方言”，簡稱爲“潮語”。(廣東의 東部 지역에서 사용되는 閩方言을 예전에는 ‘潮州語’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潮汕방언’이라고 하며 간략하게 ‘潮語’라고도 한다.)」

언어와 융합하여 생겨난 언어 형식이다.<sup>34)</sup> 언어의 이동은 인구의 이동과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자발적인 이민이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 또는 전란을 피해 남으로 이주한 개인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계획한 이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대의 주둔 같은 집단적인 이동도 있다.<sup>35)</sup>

粵方言(廣州語는 粵方言의 대표 언어임) 역시 中原의 漢語가 꾸준히 남하하면서 발전해온 형식으로 李新魁의 《廣東的方言》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先秦시대에 粵方言 지역에서는 漢語의 유입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楚方言의 영향을 받았다. 秦漢 이후 魏晉南北朝를 거쳐 唐代까지 粵方言 지역은 (中原의) 漢語를 받아들였고 게다가 粵方言 지역의 민족언어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8,9백년의 시간 동안 粵語는, 막 발생하기 시작하기부터 성숙하게 발전하게 되기까지 주로 楚方言의 전파와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는 주로 中原漢語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종파를 이루고” 한어방언의 중요한 한 부류를 형성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隋唐시기에 粵語는 한걸음 더 나아가 中原漢語 書面語의 讀書音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더욱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在先秦時代, 粵方言區開始處於接受漢語傳播的階段, 起初主要是接受楚方言的影響, 秦漢以後, 經魏晉南北朝至唐代, 粵方言區也是處於接受漢語的傳播以及與當地民族語言融合的階段, 在這八九百年的時間中, 粵語從剛萌芽發展到成熟, 從接受楚方言的傳播, 影響為主轉為以接受中原漢語為主, 終於走上“自立門戶”, 形成一支重要的漢語方言的道路, 隋唐之際, 粵語更進一步接受了中原漢語書面語讀書音更爲重要的影響.)<sup>36)</sup>

이와 같이 粵方言은 북방 漢語의 남하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粵方言에서 古漢語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34) 趙恩挺 〈廣州語 後置부사어 연구〉, 《中國文學研究》 第30輯, 韓國中文學會, 2005.6), 285쪽.

35) 李如龍 《漢語方言學》: 「不同的方言的擴展還有着不同的原因. 常見的擴展不外是民間自發移民、外出謀生和官方組織的移民或征戰屯墾.(서로 다른 방언의 확장은 또한 다른 원인이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이민, 외부로 나가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정부에서 계획한 이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대의 주둔이 있다.)」(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1), 22쪽 참조

36) 李新魁 《廣東的方言》, 69쪽 참조. 粵方言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같은 책 52-69쪽을 참조할 것



있을 것이다. 물론 粵方言은 그 지역의 토착 언어와 소수민족 언어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북방의 漢語가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古漢語가 방언형성에 일조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 다수의 古漢語 형식들이 지금까지도 粵方言에 보존되어 있는데, '過'우등비교구문도 이러한 古漢語 형식의 한가지로 고대 북방의 언어현상이 현재의 廣州語에 그대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閩方言에 속하는 潮州語와 海南語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방언은 閩方言에 속하는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閩方言의 특성이 아닌 粵方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粵方言과 언어적 성격이 다른 閩方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 방언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潮州語(廣東省)와 海南語(海南省)가 閩方言을 사용하고 있는 福建省보다 粵方言을 사용하는 廣東省에 지리적으로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廣州語의 우등비교구문은 古漢語의 '過'비교구문으로부터 유입되어 사용된 후 潮州語와 海南語 같은 인근의 閩方言 사용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V. 結論

廣州語의 비교구문은 다음과 같은 우등비교, 동등비교, 열등비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 一, 우등비교

- ① A+형용사+過+B
- ② A+형용사+過+B+수량보어
- ③ A+先+過+B
- ④ A+형용사/동사+得(唔)+過+B

### 二, 동등비교

① A 同 B 一樣 + 형용사/동사구

② A 有 B 咁 + 형용사/동사구

### 三. 열등비교

① A 冇 B 咁 + 형용사/동사구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동등비교와 열등비교는 현대 표준 중국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우등비교는 현대 표준 중국어와는 상이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廣州語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古漢語의 '過'비교구문이 廣州語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廣州語는 전반적으로 古漢語와 기타방언, 그리고 壯侗語族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물론 廣州語 자체 내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다.<sup>37)</sup>

본고에서 살펴 본 우등비교구문 역시 廣州語 자체 내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라 先秦시대부터 존재하던 古漢語의 '過'비교구문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廣州語로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閩方言에 해당하는 潮州語와 海南語 역시 廣州語에서 사용하는 '過'비교구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粵方言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이 閩方言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이유는 潮州語와 海南語가 閩方言을 사용하는 福建省보다 粵方言을 사용하는 廣東省에 지리적으로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廣州語의 우등비교구문은 古漢語 '過'비교구문에서 비롯되어 인근의 다른 방언 사용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廣州語뿐만 아니라 潮州語와 海南語 같은 閩方言 사용지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7) 趙恩挺 〈廣州語 後置부사어 연구〉, 285-288쪽 참조.

## 【參考書目】

- 王 力 《漢語語法史》，《王力文集》第十一卷，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0.3
- 王李英 〈粵語與普通話的幾種句式差異探源〉，《廣州話研究與教學(第三輯)》 171-175，廣州，中山大學出版社，1998.2
- 石 林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北京，中央民族大學出版社，1997.12
- 西周生 輯著 《醒世姻緣傳》(《古本小說集成》編輯委員會 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
- 朱金城 箋校 《白居易集箋校》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12
- 李如龍 《漢語方言學》北京，高等教育出版社，2001.4
- 李新魁 《廣東的方言》廣東，廣東人民出版社，1994.10
- 李新魁、黃家教、施其生、麥耘、陳定方 《廣州方言研究》廣東，廣東人民出版社，1995.6
- 李 榮 主編、白宛如 編纂 《廣州方言詞典》(現代漢語方言大詞典·分卷)南京，江蘇教育出版社，2000.11
- (明)陸人龍 編 《型世言》(《古本小說集成》編輯委員會 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
- 高華年 《廣州方言研究》香港，商務印書館，1984.1
- 袁家驊 等著 《漢語方言概要》(第二版)北京，文字改革出版社，1989.6
- 莊萬壽 註譯 《新譯列子讀本》臺北，三民書局，1981.12
- 麥 耘、譚步云 編 《實用廣州話分類詞典》廣東，廣東人民出版社，1997.8
- 張洪年 《香港粵語語法的研究》香港，香港中文大學出版社，1972.10
- 曾子凡 《廣州話·普通話語詞對比研究》香港，商務印書館，1984.1
- 黃伯榮 主編 《漢語方言語法類編》青島，青島出版社，1996.5
- 黃景湖 《漢語方言學》福建，廈門大學出版社，1987.6
-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研究》，濟南，山東教育出版社，2000.4
- (清)焦循 撰，沈文倬 點校 《孟子正義》北京，中華書局，2004.2
- 源國偉 〈廣州話的趨向動詞〉，《廣州話研究與教學(第二輯)》 41-51，廣州，中山大學學報編輯部，1995
- 詹伯慧 主編 《漢語方言及方言調查》武漢，湖北教育出版社，2001.1
- 詹伯慧 主編 《廣東粵方言概要》廣東，暨南大學出版社，2002.7
- 楊劍橋 《實用古漢語知識寶典》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3.8
- 趙元任 著，丁邦新 譯 《中國話的文法》香港，香港中文大學，2002
- 鄭定歐 等 《今日粵語》廣州，暨南大學出版社，1993.9

- 潘小洛〈廣州話的比較句式〉，《第七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414-419，北京，商務印書館，2000.12
- 劉月華、潘文娛、故 韡《實用現代漢語語法》北京，商務印書館，2003.5
- (宋)黎靖德 編，王星賢 點校《朱子語類》北京，中華書局，2004.2
- 鄭永輝〈試析粵語“過”一兼談某些與“過”相關的句式〉，《廣州話研究與教學(第三輯)》158-170，廣州，中山大學出版社，1998.2
- 譚步云〈廣州話形容詞比較級的語法形式〉，《廣州話研究與教學(第二輯)》22-27，廣州，中山大學學報編輯部，1995
- 顧學頤 校點《白居易集》北京，中華書局，1996.2
- 饒秉才、歐陽覺亞、周無忌 編著《廣州話詞典》廣東，廣東人民出版社，1997.10
- 趙恩挺〈廣州語와 표준 중국어의 否定文 比較 研究〉，《中國文學研究》第29輯，韓國中文學會，2004.12.
- 趙恩挺〈廣州語 後置부사어 연구〉，《中國文學研究》第30輯，韓國中文學會，263-291，2005.6.
- 하시모토 만타로 著，엄익상 譯〈아시아 대륙에서의 언어 확산:한장어의 유형학적 다양성 문제〉，《中國語語順研究》，송산출판사，52-82，1998.11.

### 【中文提要】

比較句可分為相等級，高于級與低于級的三種。其中相等級又稱為平比，高于級和低于級又稱為差比。

廣州話高于級的形式與普通話相反，其述語放在比較對象之前，但相等級和低于級與普通話相同，述語放在比較對象之後。

廣州話高于級的最基本句式為「A+形容詞+過+B」。這種“過”比較句是受古漢語的影響而形成的。北方漢語傳播到南方方言的過程當中，粵方言接受了北方的“過”比較句，而這種句式又影響到鄰近的方言，因此潮州話和海南話裏也可以找到與廣州話相同的特色。值得注意的是，這些潮州話與海南話並不是粵方言，而是閩方言，但這些閩方言卻具有與粵方言相同的特色。這是因為潮州與海南都鄰近於廣東省的關係，所以這些閩方言都受到粵方言的影響，而可帶有粵方言的特色。

**【主題語】**

廣州語, 비교구문, 語法, 古漢語, 粵方言, 漢語方言, 南方方言, 閩方言,  
客家方言